

사유서 일부 事由書 一部

저는 자전거 세계일주가 꿈인 26살 프리랜서입니다. 초등학교 시절 질 베른의 '80일간의 세계일주'와 '해저 2만리'를 읽고 큰 감명을 받아 세계일주를 향한 꿈을꾸기 시작했고, 성인이 되어 아르바이트를 하여 돈을 모아 필리핀을 시작으로 태국, 캄보디아, 미얀마 등지를 여행하며 여행경험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태국 게스트 하우스에서 자전거로 세계일주를 하고 있는 일본인 여행자를 만났는데 그의 여행담은 무척 흥미로웠습니다.

私は、自転車世界一周を目指している26歳のフリーランサーです。小学校の時ジュールヴェルヌの「80日間世界一周」と「海底二万里」を読んで大きな感銘を受けて世界一周を向かって夢を見る始めて、成人になってバイトをしてお金を貯めて東南アジアを旅行しながら色々な経験を溜まり始めました。その時タイのゲストハウスで自転車で世界一周をしている日本人旅行者と合ったんですが、彼の旅行話はとっても興味ぶかかったです。

할 줄 아는게 아무것도 없다고 여겼던 자신이, 첫 자전거 여행에서 아소산을 넘으며 용기를 얻었고 이를 바탕으로 시코쿠, 혼슈를 거쳐 홋카이도 최북단까지 가는데 성공하면서 세계일주에 도전하게 되었다는 이야기. 그의 여행담은 평범한 배낭여행만을 해왔던 제겐 감동으로 다가왔고 자전거 세계일주에 도전하고 싶어졌습니다.

何のとりえも無かったと思って自分が、初めてチャレンジした自転車旅行で「阿蘇山」を上る事が成功して「勇気」をもらって、四国、本州を経由して北海道最北端までたどり着くのが成功して世界一周へ挑戦した話です。彼の話はふつうなバックパック旅行だけをしてきた私に大きな影響を与えてくれて、私も挑戦したくなりました。何でも挑戦して自分を超えて、逆境に落ちても前に進むことが本当に素晴らしいと思ったからです。